

정읍시, 원도심 역사문화유산 발굴·보존 한다

미래유산 발굴 용역보고회
1960년 이전 근대건축물
30여 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재생사업 자료로 활용키로



지난 10일 정읍 원도심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과 미래유산을 조사·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원도심 역사문화 미래유산 발굴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원도심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미래유산을 조사·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정읍시는 지난 10일 '원도심 역사문화 미래유산 발굴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정읍문화원장, 향토사학자, 근대건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간 발굴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존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원도심 내 산재한 1960년 이전 사용 승인된 근대건축물 중 약 30여 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들 건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향후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정읍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고 축적된 자료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정읍시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한

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산재된 유산을 조사·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시의 의무"라며 "이번에 발굴

된 유산이 역사교육의 장이 되고 도시재생사업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배경 고전소설 '한눈에'

고전소설박물관 개관...김시습 '만복사저포기' 등 보유



남원시 향단로에 건립한 남원고전소설박물관이 11일 개관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를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남원시는 11일 향단로에 마련한 남원고전소설박물관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비 4억원과 지방비 12억원 등 총 16억원이 투입된 박물관은 1940년대 목조건축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206.48㎡ 규모로 조성됐다.
남원은 판소리 일곱마당 중 춘향가·흥보가·변강쇠타령의 배경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수록된 '만복사저포기', 조위 한의 '최적전', 유몽인의 '흥도전' 등 풍부한

한 고전소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남원시는 한국 고전문학의 산실인 남원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문학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문학관은 고전소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접할 수 있게 전시실을 중심으로 교육실, 연구실, 사무실, 수장고 등으로 조성됐다.
문학관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당일에는 휴관한다.
허태영 남원부시장은 "고전소설박물관 개관으로 '고전문학의 도시 남원'이란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이 공

간이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

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농어촌 빈집 수리 무상임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희망하우스 프로젝트' 추진

고창군은 흉물로 버려진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거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재생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자부담 5%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생 후 최대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특히 올해 희망하우스는 입주대상을 대폭 확대(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청년활동가)해 다양한 계층까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나 입주대상자는 고

창군 종합민원과 문의하면 된다.
안민희 고창군 주거복지팀장은 "방치된 빈집은 농촌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요소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농촌마을의 과소화 방지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마을 공동급식 60곳으로 확대

희망마을 28일까지 신청

익산시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6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44곳에서 올해 16곳을 추가한 것으로,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5120만원을 증액한 1억92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희망 마을은 아·통장 또는 부녀회장이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동급식 지원사업 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익산시는 지난해 9월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촌마을로 국한된 지역조건을 도시지역 마을이어도 농업인이 80%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업인이 급식 준비로 가중되는 부담을 해소하고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을에 조리원 1명을 지정,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 공동급식 시설(취사시설 포함)을 갖춘 마을회관 등에서 농업인 및 농업인 가족을 포함해 20인 이상 참여하는 마을에 지원한다.

급식 지원 기간은 마을당 40일 이내로 연중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해 상·하반기 분할 운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마을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사업량을 수요만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수요량을 파악해 희망하는 마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새롭게 단장해 오는 14일 문을 여는 군산원협 로컬푸드직매장. <군산시 제공>

군산원협 로컬푸드직매장 14일 개장

편의시설 확장...신선·안전 농산물 저렴한 가격 판매

군산 장미동 근대역사박물관 옆 군산원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14일 개장, 운영에 들어간다.

군산원협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안전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중심 유통체계를 세우고자 개설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근대 문화를 찾는 군산 관광객의 관심이 구매로 이어져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군산시는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편의시설 확장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또, 로컬푸드의 지역생산 농산물 이미지 확대와 지역기반 전문 로컬푸드를 강조하고, 명칭 혼동을 없애기 위해 군산원

협 박물관로컬푸드직매장에서 군산원협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휴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군산원협은 오픈 기념으로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군산 보리와 감자로 만든 군산짬뽀라면(2개), 뽕사뽕까 라면과자(1개) 등 총 수량 200 세트 소진 때까지 증정한다.

김창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 확충을 통해 좋은 직매장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판매로 건강 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

클래식 타일 | 지중해 스타일